

大學의 敎養教育 이대로 둘 것인가

許 敦 九
(仁川大 敎職科)

大學의 敎養教育에 대한 認識이 잘못되어 있다. 敎育의 最高의 目標은 人間을 올바르게 길러 내는 일이고 그 다음이 技能人으로 훈련시키는 일이다. 敎養教育은 知性的인 人間을 기르는 것으로, 大學敎育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支柱 중의 하나이다.

I. 序 言

우리나라 大學敎育에는 많은 問題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問題의 하나가 敎養教育에 관한 것이다. 이를 다시 具體的인 個別的 問題로 분석해 본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根本的인 問題가 大學敎育에 직접 關與 또는 參與하고 있는 사람들이 敎養教育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그 잘못된 認識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問題의 提起

1. 두 사람의 意見

현재 延世大學校 財團理事로 있는 元一漢은 이렇게 말했다. “韓國의 大學 學部의 敎科內容은 歐美의 大學院 課程과 비슷하고 創意力이나 研究方法은 西歐의 高等學校의 水準보다 못하

다.” 한 개인의 意見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三代에 걸쳐 韓國의 大學敎育에 직접 참여해 왔다는 사실로 보아 어느 정도 權威 있는 의견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로 대학 學部의 敎育課程이 특수한 분야의 專攻敎育의 場인 大學院과 비슷하다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대학에서 敎養教育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表現이다. 주로 敎育內容面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는 學生들이 학습하는 方法에 있어 그 수준이 西歐의 高等學校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創意力이나 研究方法에 대한 基本原理와 基礎的 技能이 교양敎育에 의해서 터득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말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敎養教育 問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敎育改革審議會가 世宗文化會館에서 개최한 첫 公聽會에서 高麗合織 회장 高致赫은 “民間企業의

核心이 되어 資本主義를 정착시키기 위해 創意·自律·獻身적으로 일할 수 있는 人材가 양성되어야 한다. 利己主義보다는 協同性·指導性을 발휘하는 人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요구한 人材의 像은 바로 教養教育이 目標로 하는 그러한 人間像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人間の 基本은 教養教育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는 엄격한 사실을 명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두 가지의 誤謬

現代의 教育이 범하고 있는 두 가지의 誤謬가 있다. 하나는 知識과 技術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教育의 主客이 轉倒되어 어느 것이 目的이고 어느 것이 手段인지를 혼동하게 된다. 知識과 技術은 그 자체가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인데 오히려 인간이 지식과 기술 그 자체만을 위해서 배우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수가 많다. 인간은 삶의 主體로서 급변하는 미래의 세계에서 人間の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한 것과 正反對의 現象이 있다. 인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人間の인 것의 意味를 잘못 이해하여 學生들이 점차 人間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知識과 技術의 習得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人間の이라는 말의 의미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潜在力을 최대한으로 실현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뜻은 실은 같은 것인데 보는 側面을 달리했을 뿐이다. 인간의 潜在力을 억압함이 없이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결국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教育에서 마저도 잘못하면 인간은 삶의 主體로서가 아니라 經濟的, 職業的 道具로서 간주되는 현상이 非一非再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教養教育을 경시하거나 專攻教育의 先修敎科로 취급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主客이 轉倒되고 있는 현상 그것이다. 격동하는 앞으로의 세계에 力動的으로 대처하면서

人間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人間の 誠實性, 社會適應力, 創意力, 探究心 등을 교양교육을 통해서 기르는 일에 大學은 너무도 무관심한 상태이다. 인간이 가지는 知性的 측면과 感性的 측면을 동시에 계발시킴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고 항상 探索하고 비판적으로 判斷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尖端科學과 技術도 나올 수 없다. 科學文明의 발달이 人間生活에 끼치는 道德的 影響에 관한 感受性이 없으면 경제나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質을 더 이상 높이는 대신에 오히려 破局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많은 저명한 科學者들이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다.

대학에서 學生들이 知的으로, 精神的으로, 道德的으로, 情緒的으로, 行動的으로 올바르게 성장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關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教育의 最高의 目標은 人間을 올바르게 길러 내는 일이고 그 다음이 技能人으로 훈련시키는 일이다. 人間啓發이 우선이고 人力開發은 그 다음이다. 教育은 人間啓發에 관여하는 일이고 訓練(training)은 人力開發을 목표로 한다. 대학에서 教養教育의 강화 또는 內質化 없이 人間の 教育 즉 人間の 啓發이 이루어지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3. 세 가지 能力과 다섯 가지 情操

人間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 즉 認知的 領域(cognitive domain), 情意的 領域(affective domain), 技能的 領域(psychomotive domain)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神이 인간에게 부여한 恩寵이고 인간의 潜在力이고 인간의 무한한 可能力이다. 인간은 教育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최대한으로 啓發하려고 노력한다. 그것도 個別的인 啓發이 아니라 均衡 있게 統合的으로 말이다. 그것이 참된 教育이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계발한다면 그것은 教育이 아니라 訓練이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人間이 인간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能力이 나온다. 즉 知性的인 힘(mental power), 倫理的인 힘(ethical power), 行動的인 힘(physical power)

이다. 그래서 教育이 육성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對象은 지성적인 힘의 요소가 되는 知識, 윤리적인 힘의 요소가 되는 態度, 행동적인 힘의 요소가 되는 技倆이다.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균형 있고 통합적인 教育이 全人教育(education for whole person)이다. 특히 대학교육에 있어 이 教育의 強化를 부르짖는 소리가 근래에 와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대학의 敎養教育의 미비와 부족을 질책하는 非難의 소리이다.

인간에게 情緒가 없다면 인간의 生活은 무미하고 건조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또한 생활의 妙味를 알고 느끼지 못할 것이고 生活自體의 진정한 즐거움이나 멋을 모를 것이다. 情緒의 발달되고 세련된 상태로서 文化的인 價値와 결부되어 지향된 知的인 감정을 情操라고 한다. 이것은 眞理를 求愛하고, 善을 추구하며, 自然과 藝術을 감상하고, 超人間的인 者를 구애하는 그리고 社會理想을 실현하는 源泉이 되고 人間行動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교육받은 자, 즉 知性人이라면 반드시 다섯 가지의 情操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즉 知的인 情操(intellectual sentiment), 倫理的인 情操(ethical sentiment), 審美的인 情操(esthetic sentiment), 宗教的인 情操(religious sentiment) 및 社會的인 情操(social sentiment)이다. 이러한 정조의 발달도 역시 敎養教育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敎育學을 人間學이라고 한다. 교육이 적접 對象으로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이다. 그런데 오늘날 大學教育은 이 명백하고 엄연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大學固有의 自律的 機能이 眞理의 探究에 있다 해서 대학을 오직 研究와 敎授단을 하는 곳처럼 생각하고 人間을 만든다는 本來의 使命을 소홀히 하고 있다.

學生들을 위해서 대학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학을 위해서 학생들이 존재하고, 학생들의 學習을 위해서 敎授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교수의 研究와 敎授(instruction)를 위해서 學生들이 있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試驗이 있어야 할 터인데 시험을 위해서 學習하는 것처럼 教育上의 主客과 價値가 전도되어 버렸다. 이러한 잘못된 敎養教育의 補完으로서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Ⅲ. 問題에 대한 論議

1. 未來社會가 필요로 하는 人間像

우리 사회는 고도로 産業化되고 多元化되고 國際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變化 속에서 우리의 大學이 만들어 내야 할 人間像은 풍요한 物質과 機械文明 속에서 인간의 價値와 自我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人間特性을 가지고 價値의 혼란과 社會變動의 와중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전실하게 대처하면서 자율적인 平生學習을 게을리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未來社會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敎育받은 人間”이다. 사고하며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 즉 全人的으로 발달하고, 다섯 가지의 情操를 지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항상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배울 만한 價値가 있는 課題를 발굴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意欲과 能力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識見이 있는 사람이다. 남의 意見이나 事實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으며 自己自身の 삶과 知識의 意味 또는 兩者의 關係를 調和시키기 위해 자신의 能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人間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實世界에서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 자신의 生活과 자기가 살아가는 社會에 자기의 知識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Whitehead가 말한 것처럼 교육의 目標은 지식의 利用方法을 학생들에게 습득시키는 데 있다. 神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단순한 知識人보다 더 쓸모 없는 것은 없을 것이다.

敎育은 그 자체가 生涯의 한 場面이지 將來生活에의 단순한 준비만은 아니다. 또한 敎育은 학생들이 배우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는 것과 사는 것과 生活하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 가는 過程이다. 따라서 교육은 人間의 삶과 배움, 배움과 生活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學生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敎養教育이다.

2. 人間の 本質

人間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動物이다. 인간에 대한 올바른 理解로부터 교육은 시작된다. 李祥燾은 「이것이 教育인가」(1975)에서 “人間은 본래 旺盛한 活動性, 未知에의 好奇心과 探究意欲을 가지고 있는데 教科書가 잘못되고 教師의 指導方法이 잘못됨으로써 活動性, 好奇心, 探究意欲은 위축되고 나아가서는 공부를 싫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Silberman은 「教室의 危機(Crisis in Classroom)」에서 “人間은 自己自身을 위하여 배우려는 欲望과 能力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알 必要가 있는 것을 探究하고 價値 있는 學習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學校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能力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基本目標은 前世代의 사람들이 한 일을 學生들이 단순히 반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獨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創造的인 發見의 才能이 있고 사물을 발명할 수 있는 인간 즉 自己에게 제시된 모든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分析하고 解釋하고 批判하고 證明할 수 있는 頭腦를 가진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大學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곳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過程을 통해서 教授와 學生들이 협동하여 알리고 노력하는 곳이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는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노력하고 意欲으로 思考하는 곳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好奇心, 探究意欲, 活動性的 原動力을 길러 주고, 그것들의 올바른 限界와 方向을 제시해 주는 것이 敎養教育이다.

3. 학습하는 方法과 科學的 方法의 學習

Conant는 敎育의 85%가 바로 商品化를 위한 技術習得에 바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졸업하는 그 때에는 그것이 바로 상품화될 수 없다는 事實을 알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Toffler는 “大學에서는 社會에 적합한 卒業生을 배출하려고 서두르고 있지만 막상 그들이 社會에 나갔을 때는 그들이 받은 敎育은 잘 맞지 않는다”라

고 말했다. 이제 大學은 社會變化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전혀 想像도 할 수 없는 奇怪한 職業에 대비한 敎育을 大學에서 미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不確實性的 時代와 社會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學生들이 새로운 知識과 새로운 技術을 평생 동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學習方法을 학습하게 하는 일이다.

Dewey는 學習指導를 위한 教授의 本質은 학생들의 反省的 思考(reflective thought)의 能力을 계발하여 自律的 思考能力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이 어떠한 狀況下에서 스스로 問題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批判的으로 사고하는 創意的인 能力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自律的으로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즉 자기 자신의 主體的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能力을 배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思考力, 學習力, 生活力 등은 敎養教育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Bell은 大學의 中心的 機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中學校와 高等學校에서는 지식과 사실에 관한 知的 技能의 학습이 中心的 課題이고, 大學院은 특수한 분야의 專門敎育의 場이 되어야 하지만 그 中間段階에 있는 대학에 있어서의 중심적 기능은 知的 生産과 知的 創造에 필요한 基本原理와 基本的 方法에 관한 學習이 되어야 한다.” 그는 대학에서 해야 할 중심적 과제는 基本原理와 方法의 학습, 즉 科學的 方法의 學習이라고 했다.

人間の 理性에다 많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던 Dewey도 反省的인 思考와 問題解決 學習을 통해서 길러지는 科學的 方法(scientific method)의 社會的인 適用이 가능해지면 公正한 社會가 實現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科學的 方法의 기초도 敎養教育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科學的 方法은 社會에서 실제로 중요한 問題나 課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代表的인 것은 企劃(planning), 意思決定(decision making), 政策決定(policy making), 體制分析(system analysis) 및 作戰計劃(operational plan) 등이다.

4. 敎養敎育과 專攻敎育의 關係

高度産業社會의 特徵 中 하나는 職業의 격심한 專門化 및 細分化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大學敎育은 더욱더 전문화 및 세분화가 요청된다. Maritain은 이와 같은 大學敎育의 現象에 대해서, 인간이 專門化 및 細分化된 분야에서만 能力者가 되고 인간의 다른 모든 問題에 있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게 敎育한다면 人間의 마음과 生活을 진보된 動物로서의 마음과 생활로 邁진케 하는 그릇된 敎育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마치 벌이 꿀을 만들어 내듯이 人間의 實生活은 완전히 經濟的인 價値와 科學的인 創造 속에서 오직 생산만 하는 動物의 生活과 같은 것이 되고 單다고 했다.

專門化 및 細分化에 대한 지나친 주장과 고집은 인간의 生活을 非人間化하여 동물적인 生活로 환원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뿐이다. 大學의 敎育이 專門化 및 細分化의 필요를 더해 갈수록 그것에 의해 초래될 未備點을 보완하기 위해 敎養敎育을 더욱 強化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敎養敎育은 專門化 및 細分化하는 전공敎育의 限界와 範圍를 定하고 그것의 方向과 運營의 原理를 규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人間的 知性的 啓發을 위한 교양敎育과 科學的 知識 및 實用的 技術의 발전을 위한 전공敎育은 大學敎育에 있어 상하의 位階的 關係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共存의 關係에 있는 것이다. 즉 大學敎育을 支撑하고 있는 두 개의 支柱와 같은 關係이다. 인간에게 있어 知性的 토대없이 科學的 知識과 實用的 技術만 을 더욱더 한다는 것은 학습의 系列上 불가능하다.

IV. 結 言

대학의 敎養敎育에 대한 認識이 잘못되어 있다. 잘못된 人식을 바꾸지 않는 한 敎養敎育은 물론 大學敎育 전체의 발전도 어려울 것이다.

大學은 학생들이 激動하는 세계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면서 人間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人間적 誠實性, 社會適應力, 創意力, 探究力 등을 교양 敎育을 통해서 길러 주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할 尖端科學技術의 基礎도 敎養敎育에 의해서 마련된다.

敎育의 최상의 目標은 人間을 올바르게 길러 내는 일이고 그 다음에 技能人으로 훈련시키는 일이다. 大學敎育에서도 지성적 人間敎育이 실용적 職業敎育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全人敎育의 기초가 되며, 敎養敎育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敎育은 배우는 것과 사는 것과 생활하는 것을 연결시켜 가는 過程이다. 學生들은 삶과 배우, 배우와 生活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하게끔 도와 주는 것이 敎養敎育이다. 學生들의 知的 好奇心, 探究意欲, 活動性의 原動力을 길러 주고 그것들의 올바른 限界와 方向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양敎育이다.

학생들이 평생 동안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즉 主體的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能力은 敎養敎育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大學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학생들이 科學的 方法을 학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의 기초는 敎養敎育에 의해서 형성된다.

敎養敎育은 大學敎育을 支撑하고 있는 두 개의 支柱 중의 하나이다. *